

## 한국인의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sup>1)</sup>

김혜숙 · 최진호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임활동의 기초 실태를 전국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목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 및 종교모임에의 참여정도와 만족도·성원친밀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모임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82.8%가 친목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 및 종교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활동은 친목모임으로 전체의 75.6%의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친목모임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중 특히 동창회에의 참여가 높다. 그 다음으로 가입수가 많은 것은 종교모임이고 다음이 취미모임으로 사회봉사모임에의 가입이 제일 낮아 6.7%만이 가입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모임에의 만족도와 성원간 친밀도도 대체로 높은 편으로 평균하여 '만족한다'는 정도의 만족도와 '친하다'는 정도의 성원친밀도를 보고하였다. 단지 사회봉사 모임에의 참여도, 만족도 그리고 성원친밀도가 예외적으로 낮다. 이러한 모임활동은 성별, 연령별, 학력 그리고 소득 수준에 의해 영향받았다. 가족관계나 친인척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단체나 모임에 가입을 더 많이 하며 참여만족도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예상한대로 주관적 안녕감은 모임에의 가입이 많을수록 높았는데, 특히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에의 만족스럽고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성원친밀도가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이론적, 현실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자아개념과 행동과는 달리 우리는 남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집단소속감을 소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적 자아와 행동을 나타내 보인다(이종한, 1992; 김혜숙, 1994; 차재호·정지원, 1993;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a, 1988). 즉,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집단(가족, 동창, 고향

친구, 이웃, 종교집단, 국가 등)에의 소속감과 집단 정체감을 중요시 여겨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곧 자기 자신의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집단으로부터의 인정과 성원들간의 원만한 관계가 개인의 안녕감과 만족 혹은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동체(혹은 집단) 의식과 행동은 그러나 현대의 산업사회에 들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서구의 원자화된 개인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나 사회 전체에 대한 의식이나 충성심들

1) 이 논문은 1995년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 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이 사라지고 있으며 가족이 해체되고 집단활동은 시간과 물질의 낭비로 여겨져 회피되는 풍토가 확산되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적 이득의 추구에만 몰두하고 사회는 이를 부추겨 상호간의 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식 대신에 이기적인 경쟁심과 약육강식의 가치관이 팽배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풍토의 확산과 물질적 축적과 함께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들간의 적대감과 상호불신, 불안감과 불만족이 오히려 커져 가고 있다. 즉,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은 물질적 향상이나 경제적 발전만으로 달성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의 객관적 환경(즉, 경제, 인구, 환경, 안전 등)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인간관계의 안정성이 필요 조건이 된다(홍숙기, 1994).

이렇게 볼 때 서구에 비해 보다 집단주의적인 의식과 가치관(Hofstead, 1980, 1983; Markus & Kitayama, 1991)을 지녀왔던 우리 나라 사람들에 있어 풍요롭고 안정된 공동생활과 활동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생활만족감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핵심적 요인이 되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혹은 선택한 집단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인 집단정체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속 성원으로서의 활동에 얼마나 열심인가, 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가, 집단 성원들과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 얼마나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가 등의 공동체의식과 활동이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가지는 만족감과 행복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우리 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집단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과 만족감은 곧 자신의 정체감과 자아존중을 높이고 따라서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같은 관계지향적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와 사회적 지지가 다른 사회에서보다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데, 특히 자신이 속한 주요 집단 성원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만족할 만한 공동생활과 집단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두 연구에서 실상 서구 사람들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사회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의 향상과 관련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Okun, Stock, Haring 및 Witter(1984)는 노인들에게 있어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은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Cooper, Okamura 및 Gurke(1992)는 대학생들에 있어서도 부모, 친척, 친구 및 집단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삶에 대한 만족도와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Triandis(Triandis et al., 1988; Triandis, 1989) 등은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더욱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와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의 사회에서는 집단생활과 집단활동이 개인에게 지니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고 개인의 정체감에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그만큼 더 크게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 들어서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 생활-가족, 이웃, 지역공동체-이 점점 축소되고 와해되어지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들이 다양한 자발적 집단의 참여에 의해 대치되고 있다(Triandis 등, 1988). 즉, 서구 사람들은 동호인 모임, 자원봉사 모임이나 종교모임 등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보다 전통적 공동체들이 충족시켜 주던 실질적·심리적 욕구-정서적 유대감, 소속감 및 상호영향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까지는 혈연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다른 공동

생활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점점 가족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구 사회에서와는 다른 형태로 집단이나 모임에의 참여가 나타난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모임에의 참여보다는 보다 폐쇄적이고 일차적이고 귀속주의적인 연줄망의 형성이라는 형태로 모임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혈연관계가 여전히 중요한 관계로 남아 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동창모임이나 동향 출신 등의 학연이나 지역 연고에 의한 연줄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김선업, 1993; 김진균, 1983; 이종한, 1992). 김선업(1993)은 현대의 한국인에 있어 특히 동창모임이 정의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한편 이웃이나 친인척 관계는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관계는 여전히 강한 연줄망이 되고 있지만 그 정의적 기능(정서적·감정적 유대의 기능)보다는 도구적 기능(즉, 물질적 자원이 교류되는 기능)이 점점 강해지고 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실상 우리 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학연의 중요성은 역사적 유래를 가지는 것으로서, 이조시대의 과거를 거친 관료들이 학연과 지연을 기반으로 하여 출세의 길을 트고자 하였던 사실이 그것이다. 현대의 한국사회에 있어 이러한 학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 소위 말하는 일류학교 입학에 대한 열망의 이유중의 하나는 막강한 동창의 인맥이 힘과 권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모임 활동의 주기능은 개인적 이득추구나 심리적 안정과 친교등이고 공공선이나 사회발전에의 참여 등의 기능은 거의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종한(1992)은 도시거주 한국인에게 중요한 집단은 그 중요도의 순서대로 직계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가까운 친척, 동창회, 취미집단, 이웃, 먼 친척 그리고 종교집단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인들과 비교해 보면, 소속 집단의 수에 있어서는 미

국인과 한국인이 다르지 않았지만, 미국인들이 소속한 집단의 94%가 자발적 집단이었는데 반해 한국인의 소속 집단의 55%만이 자발적 집단이었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 동창회가 이웃이나 종교집단 그리고 취미집단보다 더욱 중요했던 데에 반해 미국인들에 있어서는 종교집단과 취미집단들이 동창회나 이웃보다 더욱 중요하였던 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

단체와 모임활동 등의 집단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며 만족하느냐 또한 성원들끼리는 얼마나 친한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차 요인으로 집단자아존중(김혜숙, 1994; Luhtanen과 Crocker, 1990; Crocker와 Luhtanen, 1990)을 들 수 있다. 집단자아존중이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들에 부여하는 가치와 그 구성원으로서 갖는 자부심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내 집단 선호 행동을 더욱 뚜렷이 나타낸다(Crocker와 Luhtanen, 1990). 이렇게 볼 때 집단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은 집단이 그만큼 이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집단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므로 집단에의 참여와 그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자아존중은 한 개인의 과거의 집단활동과 경험으로 인해 영향받아 그 결과로 한 개인의 성향으로 되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한편 이러한 집단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만족감을 지각하도록 할 수도 있는, 양방향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 이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집단활동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실증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모임활동과 단체활동의 실태와, 그러한 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성원간 친밀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활동

이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임활동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성원친밀도나 만족도 등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검토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모임활동의 측면들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전국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모임활동은 동창회, 친목회, 계 모임 등의 친목모임, 낚시, 등산, 스포츠 등의 취미모임, YMCA, JC, 경실련, 환경운동단체, 육성회 등의 사회운동, 봉사, 교육, 문화와 관련된 모임, 그리고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모임이었다. 이 모임들은 현대 한국 사회에 관한 여러 개관 혹은 실증 문헌(김선업, 1992, 1993; 김진균, 1983; 이종한, 1992, 1994; 최재석, 1987; 한상복, 1980) 등에서 한국인에게 중요하고 보편적인 모임으로 지적된 모임들이다.

## 방 법

###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1)인구학적 자료 (2)친목, 취미, 사회봉사 및 종교집단의 단체 및 모임활동에 관한 질문들(만족도, 친밀도, 참여 빈도 등) (3)가족에 대한 만족도, 지역공동체의식 (4) 삶의 만족도 (5)가 공동생활의 중요도 및 어려울 때 우선적으로 찾는 사람 등이다. 아래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 1) 인구학적 자료

1. 거주지역
2. 지역크기(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3. 성별
4. 나
5. 직업
6. 학력

7. 월수입
8. 가구 월수입
9. 결혼상태
10. 자녀구성
11. 종교

#### 2) 단체와 모임활동에 관한 질문

1.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가입수 및 명칭
2.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모임빈도
3.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참여빈도
4.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모임에서의 지위
5.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모임의 회원수
6.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모임의 성격(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성격)
7.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모임에의 참여기간
8.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모임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상의 평가 점수로 '매우 만족한다'가 5점이고 '매우 불만족한다'가 1점임)
9.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 모임·종교모임)의 모임에서의 성원 친밀도 (5점 척도상의 평가 점수로 '매우 친하다'가 5점이고 '전혀 친하지 않다'가 1점임)
10. 집단자아존중척도(7점 척도 점수로 점수가 클수록 집단자아존중이 높음)
11. 가족관계 및 친인척관계 만족도(7점 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만족하다는 평가임)
12. 현재의 삶의 만족도(7점척도로 점수가 클수록 삶에 만족한다는 평가임)
13. 앞으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기대(7점척

도로 접수가 클수록 만족한 것임)

### 조사대상자

이 조사는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남자 506명, 여자 494명)에 대한 전국조사로 표본추출 방법은 다단계 층화 군집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표집방법은 다음의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단계1: 성인 남녀 인구 비례에 따라 광역 지역 별로 표본수 결정. 단계2: 각 지역내에서 광역시의 경우 구별로 표본수를 결정하고 기타 시도지역의 경우 구내에서 통/반을 무선으로 표집. 단계3: 광역시의 경우 구내에서 통/반을 무선표집, 기타 시, 군의 경우 통/반 또는 리/마을을 무선표집함. 총 100개의 sampling spot을 선정. 단계4: 각 sampling spot(표집된 통/반, 리/마을)에서 10개 가구를 선정

하고 그 다음 각 가구내에서 1개 표본을 추출함.

조사대상자의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및 수입별 특징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조사는 1996년 2월에 실시되었다.

### 조사방법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각 면접인이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면접하였다. 각 문항을 읽어 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 결 과

### 단체와 모임활동 개관

단체나 모임은 편의상 그 특성에 따라서 동창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b>지역별 분포</b>			<b>성별 분포</b>		
서울	258	25.8	남자	506	50.6
부산	89	8.9	여자	494	49.4
대구	54	5.4	계	1,000	100.0
광주	25	2.5	<b>연령별 분포</b>		
인천	43	4.3	20대	336	33.6
대전	25	2.5	30대	295	29.5
경기	147	14.7	40대	187	18.7
강원	35	3.5	50-60대	182	18.2
충북	32	3.2	계	1,000	100.0
충남	43	4.3	<b>개인소득수준별 분포</b>		
경북	64	6.4	없음	308	30.8
경남	84	8.4	50만원 미만	53	5.3
전북	45	4.5	50-150만원	401	40.1
전남	56	5.6	150-250만원	167	16.7
계	1,000	100.0	250만원 이상	54	5.4
			모름, 무응답	17	1.7
<b>학력별 분포</b>			계	1,000	100.0
무학, 국 중퇴	25	2.5	<b>성별·직업별 분포</b>		
국졸, 중 중퇴	70	7.0	남성 유직	480	48.0
중졸, 고 중퇴	106	10.6	무직	26	2.6
고졸, 대 중퇴	505	50.5	여성 유직	234	23.4
전문대졸 이상	254	25.4	무직	7	0.7
모름, 무응답	40	4.0	주부	253	25.3
계	1,000	100.0	계	1,000	100.0

회, 친목회, 계 등의 친목 모임, 낚시, 등산, 영화 등 취미 모임, 사회 운동, 봉사, 교육, 문화 등의 사회 봉사 모임 그리고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 모임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표 2는 각 모임이나 단체의 종류별로 응답자들의 가입 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 2에서 보면,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모임은 친목 모임으로서 75.6%가 하나 이상의 친목모임에 가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모임으로서 23.1%가 가입하고 있으며, 가장 가입율이 낮은 모임은 사회봉사 모임으로서 6.7%만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0명의 평균 가입 모임수는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모임 각각에 대하여 1.49, 0.21, 0.08, 0.25 건이었다.

가입하고 있는 모임의 수를 보더라도 친목 모임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응답자가 44.3%나 되어 친목모임이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모임의 경우에는 가입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가입하였다 하여도 대부분 한 개의 모임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컨대 종교나 사회봉사 모임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0.9%, 0.8%만이 둘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

참고로 응답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친목 모임을 세분해서 보면 동창회가 가장 많아 전체 친목모임의 32%정도 되며, 다음이 친목회로서 20%, 그리

표 2. 단체와 모임 가입수의 분포 (%)

	친목	취미	사회 봉사	종교
없다	24.4	82.2	93.3	76.9
1	31.3	14.7	5.9	22.2
2	24.5	2.6	0.5	0.7
3	12.1	0.4	--	0.2
4	4.8	0.1	0.2	--
5+	2.9	--	0.1	--
계	100.0	100.0	100.0	100.0
N	1,000	1,000	1,000	1,000
평균	1.49	.21	.08	.25

표 3. 모임가입의 주요 형태별 빈도

모임가입형태	N	%
친목1, 취미0, 사회0, 종교0	195	19.5
친목0, 취미1, 사회0, 종교0	10	1.0
친목0, 취미0, 사회1, 종교0	0	0
친목0, 취미0, 사회0, 종교1	46	4.6
친목2, 취미0, 사회0, 종교0	147	14.7
친목0, 취미2, 사회0, 종교0	5	.5
친목0, 취미0, 사회2, 종교0	1	.1
친목0, 취미0, 사회0, 종교2	2	.2
친목3, 취미0, 사회0, 종교0	63	6.3
친목0, 취미3, 사회0, 종교0	0	0
친목0, 취미0, 사회3, 종교0	0	0
친목0, 취미0, 사회0, 종교3	0	0
친목4, 취미0, 사회0, 종교0	29	2.9
친목0, 취미4, 사회0, 종교0	0	0
친목0, 취미0, 사회4, 종교0	0	0
친목0, 취미0, 사회0, 종교4	0	0
친목1, 취미1, 사회0, 종교0	29	2.9
친목1, 취미0, 사회1, 종교0	7	.7
친목1, 취미0, 사회0, 종교1	61	6.1
친목0, 취미1, 사회0, 종교1	6	.6
친목0, 취미1, 사회1, 종교0	0	0
친목0, 취미0, 사회1, 종교1	3	.3
친목2, 취미1, 사회0, 종교0	24	2.4
친목2, 취미0, 사회1, 종교0	5	.5
친목2, 취미0, 사회0, 종교1	37	3.7
친목3, 취미1, 사회0, 종교0	19	1.9
친목3, 취미0, 사회1, 종교0	6	.6
친목3, 취미0, 사회0, 종교1	15	1.5
친목1, 취미1, 사회1, 종교0	4	.4
친목1, 취미1, 사회0, 종교1	7	.7
친목1, 사회1, 취미0, 종교1	1	.1
친목2, 취미0, 사회1, 종교1	4	.4
친목2, 취미1, 사회0, 종교1	13	1.3
친목2, 취미1, 사회1, 종교0	5	.5
친목3, 취미0, 사회1, 종교1	3	.3
친목3, 취미1, 사회0, 종교1	4	.4
친목3, 취미1, 사회1, 종교0	1	.1
친목4, 취미1, 사회0, 종교0	10	1.0
친목4, 취미0, 사회1, 종교0	3	.3
친목4, 취미0, 사회0, 종교1	8	.8
모든 집단에 하나씩 가입	4	.4
어떤 집단에도 가입 안함	172	17.2
기타	51 <sup>1</sup>	7.2
전체	1,000	100

<sup>1</sup> '기타' 항목에는 이 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모임의 조합으로 빈도 6이하의 사례들이 포함되었음.

고 각종의 계, 친구모임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취미 모임의 경우에는 등산모임이 가장 많아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볼링, 축구, 탁구 등 각종 스포츠 모임이 35%, 그리고 낚시회가 12%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표 3에 한 개인이 어떠한 모임들에 가입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그 분포를 표시하였다. 이에서 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 1,000명중 828명(82.8%)이 어떤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해 모임활동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의 91.3%가 친목모임을 포함한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목모임이 얼마나 보편적인가를 알 수 있다. 두 종류의 집단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빈도가 제일 높았고 세 종류 이상의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목·취미·종교 모임에의 가입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에는 이들 각종 모임들의 모임 빈도를 보면 1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모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친목이나 사회 봉사 모임의 경우는 41%이상, 그리고 취미 모임의 경우에도 30.8%가 월 1회 모이고 있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종교모임의 경우에서만 주 1회가 33.5%로 가장 많고 월 1회는 24.1%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모임에서의 참여 정도는 대체로 매우 높아 친목이나 취미, 사회 봉사 모임의 경우 응답자의 80%

표 4. 모임 빈도의 분포 (%)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년 48회	0.3	11.2	7.3	33.5
24회	0.7	4.7	3.7	0.8
12회	47.3	30.8	41.5	24.1
6회	12.1	9.3	12.2	0.8
4회	9.4	4.7	2.4	3.7
2회	12.3	3.3	6.1	2.9
1회	9.0	4.2	2.4	2.0

이상이 대부분 혹은 자주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종교모임의 경우도 다른 집단의 경우보다 그 참여 정도가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평균으로 볼 때 '자주'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5 참조).

모임이나 단체의 크기를 보면 회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교 모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 그리고 취미, 친목모임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종교모임은 대부분 교회나 상당, 절 등으로서 34%가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봉사 모임의 경우도 11~30명의 모임이 36%, 그리고 100명 이상이 22%로 대체로 그 규모가 크다. 반면에 친목모임의 경우는 6~10명이

표 5. 모임 참여정도의 분포 (%)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대부분	47.1	37.9	46.3	38.4
자주	33.8	41.6	37.8	34.2
반	5.4	4.7	9.8	7.2
가끔	9.5	11.7	3.7	16.0
거의	4.1	4.2	2.4	4.2
계	99.9	100.0	100.0	100.0
N <sup>1</sup>	1,491	210	81	236
평균 <sup>2,3</sup>	4.01	3.92	4.17	3.82

<sup>1</sup> 각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만 포함시켰음.

중복 응답이 가능함.

<sup>2</sup> '대부분'을 5점으로 '거의'를 1점으로 척도 점수화한 점수의 평균임

<sup>3</sup> 개인의 중복응답 점수는 평균하여 계산하였음.

각 경우 사례수는 친목 752명, 취미 178명, 사회봉사 68명 그리고 종교집단 226명이었음. 이하 주를 생략함.

표 6. 회원수의 분포 (%)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1 - 5	5.6	10.4	--	3.5
6 - 10	39.4	25.6	6.2	12.6
11 - 30	38.3	39.3	35.8	22.2
31 - 50	8.9	14.2	21.0	14.3
51 - 100	5.2	6.6	14.8	13.0
101 -	2.6	3.8	22.2	34.3
계	100.0	100.0	100.0	100.0
N <sup>1</sup>	1,488	211	81	230

<sup>1</sup> 중복응답된 빈도임.

38%로 가장 많고 11~30명도 38%가 되어 대체로 소규모로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한편 모임의 성격은 친목 모임만이 비공식적인 성격이 강하며, 나머지 모임들은 대부분 공식적인 모임의 형태를 띄고 있다(표 7 참조).

표 8에 모임 참여기간의 분포와 평균이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사람들은 친목집단에 가장 오랜 기간동안 참여하여 그 평균이 5.29년이었던 그 다음이 종교집단에서의 참여기간으로 이 역시 10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35.4%나 되었다. 취미모임이나 사회봉사 모임에서의 참여기간은 대체로 짧아 3년 미만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분포가 가장 높았다.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 봉사를 제외한 친목, 취미, 종교모임의 경우 대체로 80%이상만 만족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으나, 사회봉사 모임에 대해서는 68%만이 만족하고 있어 만족도가 가장 낮다. 표 9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7. 모임 성격에 대한 지각의 분포 (%)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공식	33.6	70.0	83.0	71.2
비공식	66.4	30.0	17.0	28.2
계	100.0	100.0	100.0	100.0
N	1,491	210	81	236

표 8. 참여기간의 분포 (%)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1년 미만	.7	2.4	1.2	1.3
1-3년 미만	17.9	38.3	28.4	19.2
3-5년 미만	18.7	22.0	24.7	19.2
5-7년 미만	18.6	15.3	18.6	17.1
7-10년 미만	8.2	7.2	6.1	8.3
10년 이상	35.7	15.1	20.9	34.9
계	99.8	100.3	99.9	100.0
N	1,469	209	81	229
평균 <sup>1</sup>	5.29	.83	.32	2.81

<sup>1</sup> 1년이상 참가한 사람들의 평균 참여 기간임. 한 개인의 중복응답은 평균하여 그 개인의 점수로 삼았음. 단위는 -년임.

표 9. 모임만족도의 분포 (%)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매우 만족한다	18.2	19.6	17.1	29.4
만족하는 편이다	61.8	65.4	51.2	54.7
그저 그렇다	16.2	12.6	26.8	13.5
불만족하는 편이다	2.1	0.4	1.2	0.8
매우 불만족한다	1.5	1.8	3.7	1.7
계	99.8	99.8	100.0	100.1
N	1,491	210	8	236
평균 <sup>1</sup>	3.91	4.01	3.79	4.06

<sup>1</sup> '매우 만족한다'는 5점으로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척도점수화한 점수평균임

표 10. 성원 친밀도의 분포 (%)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매우 친하다	30.3	30.0	23.2	31.1
친한 편이다	57.1	61.0	45.1	53.4
그저 그렇다	11.4	8.9	30.5	14.3
친하지 않은 편이다	1.1	--	1.2	0.4
전혀 친하지 않다	0.1	--	--	0.8
계	100.0	99.9	100.0	100.0
N	1,491	210	81	236
평균 <sup>1</sup>	4.16	4.20	3.91	4.10

<sup>1</sup> '매우 친하다'를 5점으로 '매우 불만족한다'를 1점으로 척도점수화한 점수평균임

성원간의 친밀도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 봉사 모임에서 제일 낮아 68.3%만이 성원들이 '서로 친한 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친목, 취미, 종교모임의 경우에는 대체로 85%이상 성원 서로간이 친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편, 표 11에 각 집단별 만족도와 참여정도의 상관과 만족도와 친밀도간의 상관이 나타나 있다. 집단에서의 만족도와 참여정도의 상관은 종교집단에서 가장 높고 친목집단에서는 유의미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성원간의 친밀도와 집단만족도와는 높은 상관을 나타내 보였는데 취미집단에서만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에서 보면, 집단성원간의 친밀도 혹은 성원간의 사회적 지지도가 집단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관계

표 11. 각 집단별 만족도와 참여정도, 만족도와 친밀도 간의 상관계수 (사례수)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만족도-참여정도	.18(752)**	.29(154)**	.26(68)*	.32(17)**
만족도-친밀도	.49(752)**	.34(154)**	.46(68)**	.51(17)**

\*  $p < .05$  \*\*  $p < .01$

표 12. 성별 모임활동 (사례수)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모임 가입수				
남성	1.74(506) <sup>1,2</sup>	.32(506) <sup>3</sup>	.13(506) <sup>4</sup>	.16(506) <sup>5</sup>
여성	1.24(494)	.11(494)	.03(494)	.33(494)
모임 참여도				
남성	3.98(416)	3.89(130)	4.22(52)	3.71(77)
여성	4.04(336)	4.00(48)	4.00(16)	3.87(149)
만족도				
남성	3.92(416)	4.01(130)	3.95(52) <sup>6</sup>	4.12(77)
여성	3.89(336)	4.00(48)	3.25(16)	4.02(150)
친밀도				
남성	4.15(416)	4.20(129)	3.94(52)	4.11(77)
여성	4.18(336)	4.21(48)	3.81(16)	4.10(150)

<sup>1</sup> 모임가입수는 '없음'의 응답도 포함되어 평균된 것임. 그 외의 참여도, 만족도 및 친밀도는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응답임. 한 개인의 중복응답은 평균하여 그 개인의 점수로 삼았음.

<sup>2</sup>  $F(1, 998) = 39.72, p < .01$

<sup>3</sup>  $F(1, 998) = 45.64, p < .01$

<sup>4</sup>  $F(1, 998) = 19.56, p < .01$

<sup>5</sup>  $F(1, 998) = 32.81, p < .01$

<sup>6</sup>  $F(1, 66) = 8.012, p < .01$

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친목집단과 종교집단과 같이 정의적 집단에서 그 만족도는 성원간의 친밀도와 높은 상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 사회·경제적 특성과 모임활동

그러면 이러한 단체나 모임의 활동정도는 개개인들의 특성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모임 가입수, 모임 참여도, 모임에 대한 만족

도를 비교하였다. 모임 가입수는 모임의 종류별로 평균 모임 가입수를 계산한 것이고, 모임 참여도는 ①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②가끔 참여한다 ③반정도 참여한다 ④자주 참여한다 ⑤대부분 참여한다 등의 응답범주에 각각 순서대로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평균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임에 대한 만족도도 응답범주상의 ①매우 불만족한다 ②불만족하는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만족하는 편이다 ⑤매우 만족한다에 각각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성원 친밀도도 '매우 친하다'가 5점이고, '전혀 친하지 않다'를 1점으로 점수 부여한 것이다.

먼저 성별로 단체나 모임의 가입수를 비교해 보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 모임을 제외한 친목, 취미, 사회 봉사 모임에서 남자들이 여자들

표 13. 연령별 모임활동 (사례수)

	친목	취미	사회봉사	종교
모임 가입수				
20대	1.14(336) <sup>1</sup>	.18(336) <sup>2</sup>	.04(336)	.24(336)
30대	1.50(295)	.25(295)	.09(295)	.22(295)
40대	1.97(187)	.28(187)	.12(187)	.30(187)
5-60대	1.65(182)	.16(182)	.10(182)	.24(182)
모임 참여도				
20대	3.92(230)	3.76(50)	3.71(14)	3.69(78)
30대	3.95(232)	4.16(58)	4.19(23)	3.81(62)
40대	4.04(152)	3.72(43)	4.27(15)	3.90(49)
5-60대	4.21(138)	4.00(27)	4.44(16)	3.00(37)
만족도				
20대	3.82(230)	4.04(50)	3.86(14)	3.95(78)
30대	3.92(232)	4.02(58)	3.89(23)	4.11(64)
40대	3.93(152)	3.97(43)	3.77(15)	4.10(49)
5-60대	4.01(138)	4.00(27)	3.59(16)	4.14(36)
친밀도				
20대	4.14(230) <sup>3</sup>	4.29(50)	3.71(14)	4.12(78)
30대	4.13(232)	4.16(57)	3.92(23)	4.09(64)
40대	4.13(152)	4.16(43)	3.83(15)	4.04(49)
5-60대	4.31(138)	4.19(27)	4.13(16)	4.17(36)

<sup>1</sup>  $F(3, 996) = 19.79, p < .01$

<sup>2</sup>  $F(3, 996) = 2.68, p < .05$

<sup>3</sup>  $F(3, 748) = 3.01, p < .05$

보다 더 많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 활동의 범위가 남자들이 더 넓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예상대로 여자들이 더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모임 가입수와는 달리 모임에의 참여정도를 보면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특히 사회봉사 모임에 있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다. 그러나 친밀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에는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40대가 가장 활발하게 여러 가지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13 참조). 즉 40대는 친목과 취미 모임에서 평균가입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가장 높다. 이는 아마도 이들 40대가 사회적으로 안정되면서 여러 모임에의 활동욕구가 가장 큰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친목과 사회 봉사 모임에는 40대와 5-60대의 가입율이 높고, 취미 모임의 경우에는 30대와 40대, 그리고 종교 모임에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가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모임에의 참여도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친목모임, 사회봉사모임과 종교모임의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연령이 많아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

표 14. 학력별 모임활동 (사례수)

	친 목	취 미	사회 봉사	종 교
모임 가입수				
무학+국 중퇴	.92(25) <sup>1</sup>	.04(25) <sup>2</sup>	.04(25)	.12(25)
국졸+중 중퇴	1.23(70)	.07(70)	.04(70)	.20(70)
중졸+고 중퇴	1.66(106)	.13(106)	.05(106)	.28(106)
고졸+대 중퇴	1.47(505)	.24(505)	.11(505)	.25(505)
전문대졸 이상	1.67(254)	.27(254)	.07(254)	.23(254)
모임 참여도				
무학+국 중퇴	4.22(16)	5.00(1)	5.00(1)	4.33(3)
국졸+중 중퇴	4.15(44)	4.20(5)	4.33(3)	3.86(4)
중졸+고 중퇴	4.10(81)	4.33(12)	4.50(4)	3.77(26)
고졸+대 중퇴	4.05(370)	4.04(98)	4.15(43)	3.75(118)
전문대졸 이상	3.87(213)	3.61(58)	4.06(16)	3.95(54)
만족도				
무학+국 중퇴	4.38(16) <sup>3</sup>	4.00(1)	4.00(1) <sup>4</sup>	4.33(3)
국졸+중 중퇴	4.02(44)	3.80(5)	2.00(3)	3.79(14)
중졸+고 중퇴	4.00(81)	4.25(12)	4.75(4)	4.27(26)
고졸+대 중퇴	3.91(370)	4.06(98)	3.85(43)	4.05(117)
전문대졸 이상	3.85(213)	3.91(58)	3.63(16)	4.04(56)
친밀도				
무학+국 중퇴	4.61(16) <sup>5</sup>	5.00(1)	5.00(1)	4.00(3)
국졸+중 중퇴	4.27(44)	4.40(5)	4.00(3)	4.00(14)
중졸+고 중퇴	4.18(81)	4.42(12)	4.75(4)	4.08(26)
고졸+대 중퇴	4.20(370)	4.25(98)	3.85(43)	4.16(117)
전문대졸 이상	4.06(213)	4.04(57)	3.69(16)	4.02(56)

<sup>1</sup>  $F(4, 955) = 5.98, p < .01$

<sup>2</sup>  $F(4, 955) = 3.86, p < .01$

<sup>3</sup>  $F(4, 719) = 2.56, p < .05$

<sup>4</sup>  $F(4, 62) = 5.44, p < .01$

<sup>5</sup>  $F(4, 719) = 4.32, p < .01$

표 15. 직업과 모임활동(사례수)

	친 목	취 미	사회 봉사	종 교
모임 가입수				
경영/관리/자유/전문의	2.00(37) <sup>1</sup>	.30(37) <sup>2</sup>	.19(37) <sup>3</sup>	.27(37) <sup>4</sup>
사무관련직	1.58(171)	.30(171)	.06(171)	.18(171)
자영업	1.80(207)	.30(207)	.17(207)	.18(207)
판매/서비스/영업직	1.48(131)	.25(131)	.08(131)	.26(131)
농/임/수산업	2.23(30)	.03(30)	.17(30)	.13(30)
생산직, 운수장비, 운전자	1.39(61)	.13(61)	.05(61)	.13(61)
주부	1.29(254)	.10(254)	.04(254)	.34(254)
학생	.92(74)	.15(74)	.03(74)	.35(74)
무직	1.00(35)	.29(35)	.03(35)	.23(35)
모임 참여도				
경영/관리/자유/전문의	3.83(32)	3.00(7)	4.00(6)	4.70(9)
사무관련직	3.81(145)	3.74(44)	4.10(10)	3.77(30)
자영업	4.17(168)	3.95(52)	4.40(23)	4.17(32)
판매/서비스/영업직	3.97(101)	4.13(23)	3.60(10)	3.79(32)
농/임/수산업	4.38(26)	5.00(1)	4.25(4)	4.00(4)
생산직, 운수장비, 운전자	3.86(42)	3.38(8)	4.67(3)	3.50(8)
주부	4.03(175)	4.21(24)	4.22(9)	4.06(79)
학생	3.99(44)	3.70(10)	3.50(2)	3.80(25)
무직	4.07(19)	4.56(9)	5.00(1)	4.50(7)
만족도				
경영/관리/자유/전문의	3.84(32) <sup>5</sup>	3.79(7)	3.17(6)	4.60(9)
사무관련직	3.91(145)	3.95(44)	3.80(10)	3.87(30)
자영업	3.97(168)	4.12(52)	3.98(23)	4.51(33)
판매/서비스/영업직	3.85(101)	4.06(23)	3.70(10)	4.47(32)
농/임/수산업	4.40(26)	5.00(1)	4.50(4)	4.75(4)
생산직, 운수장비, 운전자	3.94(42)	4.00(8)	4.00(3)	4.13(8)
주부	3.91(175)	3.96(24)	3.22(9)	4.09(79)
학생	3.64(44)	3.50(10)	4.00(2)	4.06(25)
무직	3.67(19)	4.33(9)	5.00(1)	3.86(7)
친밀도				
경영/관리/자유/전문의	4.14(32)	3.93(7)	3.50(6)	4.11(9)
사무관련직	4.09(145)	4.17(43)	3.60(10)	4.03(30)
자영업	4.21(168)	4.21(52)	4.16(23)	4.06(33)
판매/서비스/영업직	4.11(101)	4.28(23)	3.50(10)	4.16(32)
농/임/수산업	4.49(26)	5.00(1)	4.50(4)	4.50(4)
생산직, 운수장비, 운전자	4.21(42)	4.25(8)	4.00(3)	3.50(8)
주부	4.17(175)	4.17(24)	3.89(9)	4.13(79)
학생	4.14(44)	4.20(10)	4.00(2)	4.18(25)
무직	4.11(19)	4.22(9)	5.00(1)	4.29(7)

<sup>1</sup> F(8, 991) = 7.42, p < .01

<sup>2</sup> F(8, 991) = 4.24, p < .01

<sup>3</sup> F(8, 991) = 3.35, p < .01

<sup>4</sup> F(8, 991) = 3.68, p < .01

<sup>5</sup> F(8, 743) = 2.77, p < .01

하고 있다.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별로는 일관성 4있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성원친밀도는 5-60대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구분되게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들의 학력수준과 모임에의 가입정도와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친목 모임과 취미 모임의 경우에는 무학이나 국민학교 정도의 저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정도가 낮으며, 취미 모임에는 고등

학교와 대학교 수준의 학력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표 14 참조). 종교 모임에는 학력에 상관없이 비교적 고르게 가입하고 있다.

모임에의 참여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친목모임의 경우에만 일관성 있게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성원 친밀도에 있어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친밀도가 낮아졌다.

한편 개개인들의 직업과 모임 활동간의 관계를 보면 친목 모임의 경우(표 15)는 농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와 경영/관리/자유직 종사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의 모임활동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15 참조). 취미 모임에는 거꾸로 농업 등예의 봉사자와 주부가 가장 적게 가입하고 있으며 경영/관리나 사무직, 그리고 자영업자 등이 많이 가입하고 있다. 사회봉사 모임에는

경영/전문직, 자영업 그리고 농/임/수산업 종사자가 더 많이 참여하였다. 또 종교 모임에는 다른 종류의 모임과는 달리 주부나 학생층의 가입이 가장 활발하다. 친목모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농 임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며, 이밖에도 자영업이나 생산직 등에서 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단체나 모임의 활동정도가 어떻게 다른가? 표 16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종교모임을 제외하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층이 더 많이 단체나 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친목 모임의 경우 월 가구수입이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평균 1.4개의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데 비해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평균 1.9개의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취

표 16. 가구수입과 모임활동 (사례수)

	친 목	취 미	사회 봉사	종 교
모임 가입수				
-100만원 미만	1.42(128) <sup>1</sup>	.17(128) <sup>2</sup>	.07(128) <sup>3</sup>	.23(128)
100-200만원 미만	1.35(444)	.17(444)	.05(444)	.24(444)
200-300만원 미만	1.61(292)	.23(292)	.10(292)	.24(292)
300만원 이상	1.94(108)	.42(108)	.20(108)	.28(108)
모임 참여도				
-100만원 미만	4.16(88)	4.00(19)	4.63(8)	3.96(28)
100-200만원 미만	3.97(322)	3.75(66)	4.12(19)	3.81(98)
200-300만원 미만	3.99(234)	4.00(59)	3.93(27)	3.95(64)
300만원 이상	4.14(89)	3.98(32)	4.43(14)	3.36(28)
만족도				
-100만원 미만	4.03(88)	4.00(19)	3.50(8)	4.04(28)
100-200만원 미만	3.91(322)	3.97(66)	3.79(19)	4.10(99)
200-300만원 미만	3.90(234)	4.01(59)	3.83(27)	3.99(64)
300만원 이상	3.86(89)	4.14(32)	3.86(14)	4.00(28)
친밀도				
-100만원 미만	4.41(88) <sup>4</sup>	4.26(19)	4.13(8)	4.29(28)
100-200만원 미만	4.11(322)	4.23(66)	3.91(19)	4.10(99)
200-300만원 미만	4.14(234)	4.14(58)	3.72(27)	4.09(64)
300만원 이상	4.15(89)	4.20(32)	4.14(14)	4.00(28)

<sup>1</sup> F(3, 968) = 7.59, p < .01

<sup>2</sup> F(3, 968) = 7.18, p < .01

<sup>3</sup> F(3, 968) = 5.07, p < .01

<sup>4</sup> F(3, 729) = 5.61, p < .01

미 모임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3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평균 0.4개의 취미 모임에 가입하고 있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더 많은 모임에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과 모임가입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이러한 모임들은 자발적인 모임들로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이들 모임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소득수준에 따른 모임에의 참여도나 모임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목모임의 성원친밀도 지각에 있어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친밀도를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의 크기와 모임활동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친목 모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가입율이 더 높다(표 17 참조). 한편 모임에의 참여도는 취미 모임에서 지역사회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일관성 있게 높아지고 있어, 예를 들어 대도시 주민의 참여도는 3.74인데 읍·면 지역에서는

4.37로 높아지고 있었다. 친목 모임에 대한 만족도와 성원친밀도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서 제일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 인간관계와 모임활동

이번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친목이나 취미, 사회 봉사, 또 종교 등의 자발적인 모임활동이 사람들의 주요한 인간관계인 가족이나 친인척 관계의 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대체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임활동도 기본적으로는 사람들간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정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표 18과 표 19에 가족관계 만족도, 친인척관계 만족도와 모임활동의 제 측면과의 상관관계가 각각 나타나 있다.

그러면 먼저 가족 관계의 만족도와 모임활동간의 관계를 보면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임가입수는 친목과 취미, 그리고 사회 봉사모임에서

표 17. 거주지 크기와 모임활동 (사례수)

	친 목	취 미	사회 봉사	종 교
모임 가입수				
대 도시	1.37(493) <sup>1</sup>	.23(493)	.06(493)	.24(493)
중소도시	1.48(262)	.21(262)	.10(262)	.24(262)
읍면단위	1.76(245)	.19(245)	.12(245)	.25(245)
모임 참여도				
대 도시	3.91(371)	3.74(96) <sup>2</sup>	4.20(20)	3.87(114)
중소도시	4.09(192)	3.90(44)	4.11(19)	3.67(57)
읍면단위	4.10(189)	4.37(38)	4.18(24)	3.87(55)
만족도				
대 도시	3.86(371) <sup>3</sup>	3.91(96)	3.72(20)	4.05(114)
중소도시	3.87(192)	4.17(44)	3.89(19)	3.96(57)
읍면단위	4.05(189)	4.09(38)	3.77(24)	4.15(55)
친밀도				
대 도시	4.12(371) <sup>4</sup>	4.13(95)	3.78(25)	4.13(115)
중소도시	4.14(192)	4.25(44)	3.84(19)	4.02(57)
읍면단위	4.27(189)	4.33(38)	4.09(24)	4.14(55)

<sup>1</sup>  $F(2, 997) = 7.61, p < .01$

<sup>2</sup>  $F(2, 175) = 4.13, p < .05$

<sup>3</sup>  $F(2, 749) = 4.90, p < .01$

<sup>4</sup>  $F(2, 749) = 4.08, p < .05$

표 18. 가족 관계 만족도와 각 모임의 가입수, 참여도, 만족도, 친밀도 등과의 상관계수 (사례수)

	친 목	취 미	사회 봉사	종 교
가족관계만족도-가입수	.14(750)**	.07(178)*	.07(68)*	.02(234)
가족관계만족도-참여도	.10(750)**	-.06(178)	.03(68)	.07(226)
가족관계만족도-만족도	.18(750)**	.06(178)	-.04(68)	.03(227)
가족관계만족도-친밀도	.14(750)**	-.04(178)	-.17(68)	.06(227)

\*  $p < .05$  \*\*  $p < .01$

표 19. 친인척 관계 만족도와 각 모임의 가입수, 참여도, 만족도 및 친밀도와의 상관계수(사례수)

	친 목	취 미	사회 봉사	종 교
가족관계만족도-가입수	.13(748)**	.08(176)**	-.02(68)	.04(233)
가족관계만족도-참여도	.09(748)*	-.03(176)	.09(68)	.14(225)*
가족관계만족도-만족도	.19(748)**	-.0003(176)	.13(68)	.11(226)
가족관계만족도-친밀도	.18(748)***	.05(175)	.11(68)	.14(226)*

\*  $p < .05$  \*\*  $p < .01$

대체로 그 상관관계가 낮기는 하지만 가족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상반된 가설 중에서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안정되어 있을수록 여러 모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가입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자료로는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다.

한편 가족관계 만족도와 모임에의 참여도, 모임 만족도, 그리고 성원친밀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각각 친목모임에 대해서만 정적 상관관이 있을 뿐 다른 모임에서는 명확한 관계를 발견하기 힘들다.

친인척 관계도 가족 관계와 마찬가지로 모임에의 가입수는 특히 친목모임에 있어서 친인척 관계의 만족도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으며, 또 모임에의 참여도와 성원친밀도도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의 경우 대체로 친인척 관계가 원만할수록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표 19 참조). 뿐만 아니라 모임에 대한 만족도도 친인척 관계의 만족도와 대체로 비례하여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는 친목모임에서만 발견될 뿐 취미나 사회 봉사, 종교모임에서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집단지아존중과 모임활동

이제 각 개인이 집단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집단에 부여하는 가치의식을 나타내는 집단자아존중과 모임 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표 20에 개인의 집단자아존중점수와 각 모임에의 활동과만족도 등과의 상관성이 나타나 있다.

표 20에서 보면, 집단자아존중은 특히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에서의 성원간 친밀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자아존중 중 집단 성원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집단을 위해 일하느냐와 얼마나 인정받는 멤버이냐를 표시해 주는 멤버십 하위척도 점수와 특히 종교모임에서의 성원간 친밀도와 모임만족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친목모임이나 특히 종교모임에서의 적극적 활동과 좋은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 집단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집단에 대한 가치의식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론, 그 인과관계의 방향은 양방향적으로 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집단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고 집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집단활동에 열심히고 또한 다른 구성원 과도 친밀하게 지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집

표 20. 각 모임의 가입수, 만족도 및 성원친밀도와 집단자아존중 점수와의 상관 (사례수)

모임\집단자아존중	총 점	사 적	공 적	정체감	멤버십	
친목	가입수	.07(738)*	.09(749)*	.04(745)	.05(741)	.13(750)**
	친밀도	.20(738)**	.14(749)**	.19(745)**	.14(741)**	.18(750)**
	만족도	.10(738)**	.08(749)*	.10(745)**	.08(741)*	.13(750)**
취미	가입수	.09(175)	.06(178)	.03(176)	.13(176)	.07(177)
	친밀도	.10(174)	.0029(177)	.17(175)*	.15(175)*	.04(176)
	만족도	.07(175)	.03(178)	.11(176)	.03(176)	-.01(177)
사회	가입수	-.19(67)	-.07(68)	-.13(68)	-.02(68)	-.27(68)*
	친밀도	.17(67)	.20(68)	.20(68)	.13(68)	.03(68)
	만족도	.06(67)	.03(68)	.1(68)	.04(68)	.03(68)
종교	가입수	.08(231)	.05(232)	.10(232)	.04(232)	.14(233)*
	친밀도	.25(224)***	.16(225)**	.28(225)***	.15(225)*	.33(226)***
	만족도	.18(224)**	.10(225)	.20(225)**	.10(225)	.24(226)***

\*  $p < .05$  \*\*  $p < .01$

표 21. 삶 만족도와 각 모임에의 가입수, 참여도, 만족도 및 친밀도와의 상관계수 (사례수)

	친 목	취 미	사회 봉사	종 교
삶 만족도-가입수	.11(750)**	.09(178)**	.07(68)*	.09(233)**
삶 만족도-참여도	.10(750)**	-.03(178)	.05(68)	.17(225)*
삶 만족도-만족도	.16(750)**	-.00(178)	-.03(68)	.22(226)**
삶 만족도-친밀도	.13(750)**	.07(177)	.10(68)	.29(226)**

\*  $p < .05$  \*\*  $p < .01$

단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른 성원과도 친밀히 지내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집단자아존중을 하나의 개인차 변인으로 보아, 일시적 활동으로 영향받아 변화가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전자의 영향 방향, 즉, 집단자아존중이 높은 사람이 집단 활동의 양과 참여도 그리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현재로는 더욱 가능성이 높은 과 정으로 보인다.

### 삶의 만족도와 모임활동 및 집단자아존중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모임활동 및 집단자아존중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표 21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와 모임활동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모임 가입수에 있어서 모든 모임의 종류에 공

통적으로 많은 모임에 가입하고 있을수록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경향은 특히 친목모임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서 예를 들면 삶에 매우 불만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0.9개의 친목모임에 가입하고 있으나, 거꾸로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1.8개의 친목모임에 가입하고 있었다.

한편 모임에의 참여도도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의 경우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수록 삶에 더 만족한다. 모임에 대한 만족도는 친목과 종교 모임에 있어서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친목집단과 종교집단의 성원친밀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특히 종교집단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모임활동과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주관적

표 22. 미래 삶에 대한 기대와 각 모임의 가입수, 참여도, 만족도 및 친밀도 등과의 상관계수 (사례수)

	친 목	취 미	사회 봉사	종 교
미래 삶 기대-가입수	-.00(747)	.07(175)	-.07(68)	.02(231)
미래 삶 기대-참여도	.00(747)	-.08(175)	-.15(68)	.07(231)
미래 삶 기대-만족도	.07(747)	.06(175)	.10(68)	.10(231)
미래 삶 기대-친밀도	.09(747)*	.03(175)	-.03(68)	.15(231)*

\*  $p < .05$

표 23. 집단자아존중감 총점 및 각 하위척도 점수와 삶에 대한 만족도 및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의 상관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
집단자아존중감 총점	.23**	.22**
공적	.15**	.14**
사적	.24**	.17**
정체감	.17**	.17**
멤버십	.57**	.28**

\*\*  $p < .01$

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 자발적인 모임들이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표 23에는 집단자아존중점수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상관관이 나타나 있는데, 집단자아존중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졌다. 즉, 집단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을 가진다는 것인데, 특히 집단인으로서의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혹은 집단성원으로 인정받고 가치로운 성원이나에 대한 지각(즉, 멤버십 집단자아존중)과 삶의 만족도는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즉, 자신이 가치롭고 열성적인 집단 성원이라고 스스로 지각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 집단자아존중과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그 상관의 정도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와의 상관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한번 집단활동에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참여와 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자부심이 높은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요약 및 논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82.8%가 친목모임·취미모임·사회봉사모임 및 종교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활동은 친목모임으로 전체의 75.6%의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친목모임에 가입하고 있다. 이중 특히 동창회에의 참여가 높아 김선업(1992, 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가입수가 많은 것은 종교모임이고 다음이 취미모임으로 사회봉사모임에의 가입이 제일 낮아 6.7%만이 가입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모임에의 만족도와 성원간 친밀도도 대체로 높은 편으로 평균하여 '만족한다'는 정도의 만족도와 '친하다'는 정도의 성원친밀도를 보고하였다. 단지 사회봉사 모임에의 참여도, 만족도 그리고 성원친밀도가 예외적으로 낮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자원봉사 모임 등의 사회봉사 모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임 가입 수에 있어서 종교모임에서만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았고 나머지 세 모임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인데(Booth, 1972), 여성들에 있어 육아와 가사일에 묶여 취미모임이나 사회봉사 모임 등의 사회 집단에의 참여가 제한받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서구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모임참여 정도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보다 정의적 집단인 종교집단에 많

이 참여하고 있다.

연령별 모임참여는 40대에서 가장 활발한데, 모임의 성격에 따라서 친목과 사회봉사모임에는 40-60대의 가입율이 높고 취미모임에는 3-40대의 가입율이 높다. 종교모임에의 참여는 연령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친목모임이나 취미모임등에의 가입은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빈번하였다. 이는 그만큼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모임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특히 취미모임은 전문직이나 자영업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친목모임은 농/임/수산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며 친목모임에의 만족도와 성원친밀도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이와 일맥상통하게 친목모임에의 가입과 만족도는 읍면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동창회 등의 친목모임이 가장 활성화되고 보편적인 모임활동이 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 등의 거주민들에 있어 더욱 중요한 모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취미모임에의 참여는 주로 대도시의 전문직이나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국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등의 읍면지역 거주민들에게는 등산·낚시·영화모임과 같은 취미모임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종교모임에의 참여는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직업별로는 학생이나 주부들의 참여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외로 젊은 학생들이 종교모임에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어 흥미롭다.

가족관계나 친인척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단체나 모임에 가입을 더 많이 하며 참여만족도도 높다(친목모임의 경우) 사실은 이러한 모임활동이 현대 산업사회에서 불만스럽고 더 이상 정의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가족생활에의 대체가 된다는 가설과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한 집단에

의 만족스러운 참여가 다른 집단에도 적극적으로 또 만족스럽게 참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의 방향이나 제3의 요인에 의한 설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집단의식과 집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는 집단자아존중은 특히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에서의 성원간 친밀도와 집단만족도 지각과 관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집단에 대한 높은 자부심은 서로 친밀한 구성원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또한 집단에 만족하도록 함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의 멤버로서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과 타구성원들에 의해 좋은 집단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특히 종교모임에 만족하고 자신이 속한 종교집단성원들이 보다 친밀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고 그 멤버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집단에 만족하며 성원들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이 더욱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예상한대로 삶에 대한 만족도는 모임에의 가입이 많을수록 높았고, 특히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에의 만족스럽고 적극적인 참여가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친목모임과 종교모임에서의 성원친밀도도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물론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허용하지는 않지만, 집단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 등의 보다 정의적인 욕구 충족의 기능을 가진 집단에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더욱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종교집단에의 만족스러운 참여와 성원간의 친밀도가 삶의 만족도와 가장 상관이 높다는 결과가 이러한 모임들의 기능중 심리적 안정과 유대감 진작 등의 정의적인 기능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모임

활동과 주관적 안녕과의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주관적 안녕을 단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삶의 만족도 측정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집단활동들의 기능-정의적 기능, 사적 이득추구 기능, 사회봉사 기능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기능들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유친이나 취미계발 혹은 정신적 안정 등의 보다 개인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모임보다 공공선이나 사회발전 등의 보다 사회적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회봉사모임이 그 모임에의 가입정도나 만족도, 성원친밀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임활동은 주로 사교나 취미계발 등의 개인적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이고 사회발전에의 참여나 시민정신 혹은 타인에의 봉사 등의 동기에 의한 것은 드물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봉사모임에의 참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사회봉사모임에 가입한 사람의 수가 작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봉사 모임이나 사회운동모임은 동창회 등의 친목모임에 비해 그 자발적 성격이 매우 크고 본인에게 직접 어떤 사적 이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모임에의 동기가 다른 모임에의 참여자들보다 높을 수 있고 또한 그만큼 더 큰 의미와 보람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 못했고 후속 연구에서 적극적 참여자들에 대한 사례 연구와 면접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임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지도록 되는 것이 주로 그 모임이 개인의 정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이라면, 사회봉사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원간의 친밀도나 심리적 만족감 등을 보다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김선업(1992). 한국사회 연줄망의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학, 26(여름), 1-33.
- 김선업(1993). 연줄망과 연고주의. 임희섭·박길성 편, *오늘의 한국 사회*. 서울: 나남.
- 김진균(1983). 한국사회의 구조적 역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몇가지 개념에 관하여. 사회과학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범문사.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03-116.
- 이종한(1992). 공동체 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6-93.
- 이종한(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차재호·정지원(199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최재석(1980).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중판). 서울: 개문사
- 한상복(1980). 韓國人の 共同體意識에 관한 研究. 韓國의 社會와 文化, 제3집.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홍숙기(1994). 일과 사랑의 심리학: 남자와 여자의 생활환경과 행복. 서울: 나남출판사.
- Booth, A(1972). Sex and social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 183-193.

- Cooper, H, Okamura, L., & Gurke, V(1992). Social activ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 573-583.
- Crocker, J., & Luhtanen, R(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5-66.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Sage.
- Hofstede, G(1983). National cultures in four dimensions: A research-based theory of cultural differences among nation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XII*, 46-74.
- Luhtanen, R., & Crocker, J(1990). *A collective self-esteem scale: Self evaluation of one's social identity*. Unpublished paper.
- Markus, H. 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Okun, M. A., Stock, W. A., Haring, M. J., & Witter, R. A(1984). Health and subjecti Well-being: A Meta-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9*, 111-131.
- Trinadis, H. C(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ical Review, 96*, 506-520.
-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338.

# Koreans' Group Activities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Hai-Sook Kim and Jin-Ho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Ajo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basic features of Koreans' group activities by conducting a nationwide survey. More specifically, it examined the number of groups in which people participate, the participation frequency, satisfaction with the groups and the intimacy among group members that people perceive regarding the social gatherings, groups for cultivating hobbies, social service groups and religious groups. Another purpose of the present surve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group activities of peopl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1,000 people of both sex were sampled and responded to the interviewer. The results showed that 82.8% of the respondents participated in more than one group. The groups in which Koreans participate the most were the social gatherings or the friendly societies, of which 75.6%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the members. Among these social gatherings or friendly societies, the most common was the alumni association. The second most common social groups in which people participate were the religious group, the next were the groups for hobbies and the least popular one was the social service group. Only 6.7% of the respondents were the members of the social service groups. In general,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ir group and reported that members of their groups were intimate. However, the participation rate, satisfaction with groups and the intimacy among group members in the social service groups were reported as the lowest. These group activities were affected by gender, age, education and the income level. It was also found that as people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family and relatives, they not only participated in more groups but they also felt greater satisfaction with their groups and group activities. Finally and as expected, in general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the groups in which people participated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Moreover, the satisfactory group activities and the intimacy among group members in social gatherings and the religious group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ubjective well-being. The theoretical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